깜짝선물 받은 전상현 "성적으로 보답"

전상현

지난 시즌 신인왕 수상 실패에 팬들이 '샛별상' 만들어 선물
트로피·상장에 아이싱복까지
"가을야구 위해 최선 다할 것"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KIA 타이거즈 전상현. 팬들은 그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KIA 투수 전상현은 얼마 전 팬들에게 깜짝 선물을 받았다. 지난 시즌 신인왕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던 전상현을 위해 팬들이 '샛별상' 트로피와 상장을 만들어 아이싱복 등과 함께 선물한 것이다.

"후보로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던 전상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팬들의 선물에 감동했다.

전상현은 "팬들에게 이런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감동 받았다. 집에 장식해놨다(웃음)"며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은 전상현은 지난 6일 키움과의 홈경기를 통해 2020시즌 첫발을 내디뎠다.

전상현은 1-1로 맞선 8회 1사 3루에서 시즌 첫 등판에 나섰다.

부담 많은 상황에 등판한 전상현은 첫 타자 김하성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김하성의 도루 시도 때 포수 백용환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3루에 있던 주자 서건창이 홈에 들어왔다.

도루와 실책으로 김하성은 3루까지 향한 상황. 이어진 이정후와 승부에서 중견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점수는 1-3까지 벌어졌다. 실점은 했지만 실책에 의해 전상현의 자책점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은 첫 등판에서 1.2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KIA는 8회말 최형우의 솔로포로 2-3까지 추격은 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전상현은 7일 "점수를 안 줘야 하는 상황에서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너무 들어갔다. 힘이 들어가니까 공도 뜨고 제구가 잘 안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쉬움은 남지만 부상에서 벗어나 순조롭게 시즌을 시작했다는 부분은 만족스럽다.

전상현은 "첫 경기 만족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다"며 "캠프 때 안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마음가짐을 새로하면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올 시즌 다른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부상 없이 풀타임을 뛰고 싶은 게 목표다. 그리고 내 역할 잘해서 팀이 가을야구를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하준영이 자리를 비웠고, 고영창도 아직 완벽 컨디션은 아닌 상황. 그만큼 불펜에서 전상현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부담감이 아닌 책임감으로 시즌을 보내겠다는 각오다.

전상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던 대로 내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올 것이니까 체력에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첫 경기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다. 당연히 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힘 빼고 던지면서 내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팬들이 전상현에게 선물한 샛별상 트로피, 상장, 아이싱복.

덕아웃 T 톡톡 홈런 친 최형우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잘 맞기는 했다"

▲문경찬을 보면 좋겠다 = 양현종과 브룩스 '원투펀치'를 내고도 2연패를 기록한 KIA. 윌리엄스 감독은 7일 키움과의 3차전에 앞서 '문경찬'의 이름을 언급했다. 전날 필승조 전상현이 1.2이닝 동안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불펜 가동이 쉽지 않았던 상황. 부담 많은 상황에서 이민우가 등판하게 된 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이민우가) 8이닝을 던져주면 좋겠다. 문경찬을 보고 싶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선발이 많은 이닝을 소화해준 뒤 리드 상황에서 마무리 문경찬이 등판해줬으면 하는 윌리엄스 감독의 바람이었다.

▲잘 맞기는 했어요 = 최형우가 개막 두 경기 만에 홈런포를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최형우는 지난 6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1-3으로 뒤진 8회말 2사에서 이영준을 상대로 중앙 담장을 넘기며 마수걸이 홈런을 만들었다. 이 홈런으로 KIA는 1점 차까지 추격은 했지만 추가 득점 없이 그대로 경기는 2-3 패로 끝났다. 최형우는 7일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했느냐"는 질문에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잘 맞기는 했다"며 웃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않을 때도 매일 많은 훈련을 했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몸상태인데 몸 컨디션도 좋은 것 같다"고 만족했다.

▲길게 보고 있었어요 = '예비역' 박진태가 새 마음으로 새 출발선에 섰다. 사이드암 박진태는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가을 팀으로 복귀했다. 스프링캠프를 거쳐 복귀를 준비했던 그는 지난 6일 브룩스와 함께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됐다. 박진태는 "생각보다 일찍 콜업됐다. 길게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몸상태도 잘 준비했고, 코치님께서 기복을 줄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썼다. 이제 진짜로 야구를 시작하는 것 같다. 잘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올해 밀착지원 사업 확대

전문가들이 우수선수 체계적 관리
볼링·유도 등 7 종목 9개 팀 선정

전남스포츠과학센터가 올해 스포츠 밀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밀착지원 사업은 전남스포츠과학센터 내·외부 전문가가 전남지역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전남체육회관에서 전남스포츠과학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밀착지원 대상으로 볼링, 유도, 우슈, 복싱, 역도, 테니스, 배구 7종목 9개팀을 선정했다. 지난해 6종목, 6팀에서 지원대상이 3종목 늘었다.

이들은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들의 훈련, 컨디션 관리를 받게된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 김태완 센터장, 운동역학(선임연구원 김진선), 스포츠심리학(연구원 차여진), 운동생리학(연구원 정채원) 전공별 박사 연구진이 지원그룹이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들은 지난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심의를 거쳐 2019년에 11편의 보고서를 게재했으며, 체육과학회지, 한국스포츠학회지 등 KCI 등재지에도 연구논문을 수록했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올해도 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들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시체육회, 박재현 서구체육회장 일단 인준

대한체육회 유권해석 받고 결정

박재현 광주 서구체육회장 당선자가 일단 체육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7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시체육회 상임위원회에서 박 당선자를 서구체육회장으로 인준했다.

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박 당선자의 인준에 대한 질의결과 '회장 인준에 대한 권한은 광주시체육회에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법원 결정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박 당선자 대한 법적논란은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체육회는 최근 광주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서구체육회장으로 선출됐던 박재현 당선자가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와 재선거 실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박 당선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전까지 재선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체육회장 재선거가 무산됐다.

서구체육회 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후보자격 시비'논란이 일었던 박 당선자에 대해 '후보 자격 부적격' 결정과 함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29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박 당선자과 함께 선거에 출마했던 박종석 후보가 '박 당선자가 지난 1997년 광주시체육회 재직 중 업무상 배임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아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박 당선자는 이에 대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97년도의 벌금형 300만원형은 확정판결 2년이 경과돼 형이 실효된 관계로 사면복권됐기에 후보자격 및 당선인 자격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에 핸드볼 MVP 트로피 전달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에게 MVP트로피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광주도시공사 한승미 선수, 오세일 감독, 강경민 선수, 김 회장, 안재오 시체육회 경기운영부장.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가 지난 2019-2020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MVP로 선정된 강경민(24· 센터백)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

시체육회는 6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시체육회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김창준 체육회장이 강경민에게 MVP, 득점왕, 베스트7 등 3개 트로피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창준 체육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팀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4승을 거둔 것은 강경민 선수 등의 투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팀의 맏언니로서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강경민은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대회 임원과 기자단의 투표를 거쳐 여자부 MVP로 선정됐다. 득점왕(123득점), 베스트7(센터백)으로 선정되면서 3관왕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3관	마이 스파이, 프리즌 이스케이프, 호텔 레이크
4관	라라랜드, 알리타: 배틀 엔젤
5관	마이 스파이, 호텔 레이크
9관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마션
7관 씨네커플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1917, 리벤지 나의 청춘은 너의 것
8관 씨네커플	저 산 너머,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마션 헌티드 파크, 슈팅걸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Ⅱ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9. (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